

새로운 생태문명을 지향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적 접근-

(한신대 생태문명원 개원기념 콜로키움, 2022년 4월 22일, 발표자: 장 왕식)

<들어가는 말>

최근 적지 않은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들을 덮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기존의 교과서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은 이성, 주체, 진보사관 등의 근대주의의 핵심 개념들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탈근대주의가 융성한 바 있다. 탈근대주의적 사상에 비록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오늘의 인류에게 도전을 가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잘 알려 주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위해서 인류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통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21세기가 시작된 후 벌써 20년이 초과된 지금, 사람들은 포스트모던을 넘어서 이젠 포스트휴머니즘, 혹은 트랜스휴머니즘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고 외친다. 조만간 AI의 지성이 인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특이점이 도래할 터인데, 이때를 미리 예상하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 혹은 인류는 기계와 어떻게 구별되며, 인간됨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다. 학자들이 새로운 교과서를 써야한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는 포스트모던의 도전이든, 혹은 포스트휴머니즘의 도전이든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예비하는 데 있어 화이트헤드 철학이 여전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화이트헤드가 세인의 관심을 끌지 시작한지 이미 1세기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철학과 신학은 물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여전히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늘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면서 오늘의 철학적 흐름의 준거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의 철학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많은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따라서 이하에서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형태로 해석되어온 기존의 화이트헤드 해석을 소개함은 물론, 포스트휴머니즘 운동 등 최근의 새로운 철학 운동들과 화이트헤드 철학이 어떻게 조우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상적 형태의 생태문명론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하겠다.

1. 생태학의 정의와 과제

생태문명론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생태학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린 후, 그런 정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논점들을 정리하는 일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생태학ecology의 'eco'는 헬라어 oikos(가정)이라는 어원에서 왔다. 그러므로 본래 생태학의 정의는, '지구라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규정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정신에 부드럽게 어울린다는 점에서 우리의 흥미를 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일반적으로 하나의 학문은 언제나 포괄적이어야 하고 종합적인 한도 내에서 건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를 뒷받침하는 문구가 있다. "다자는 일자가 된다, 그리고 일자에 의해 증가한다.... 존재자들은 본성상 연접적 통일체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이접적 다자이다." (The many become one, and are increased by one. In their natures, entities are disjunctively many in process of passage into conjunctive unity.) (PR 21)

얼핏 난해하게 보이는 이 구절의 핵심은 모든 일자로서의 존재자는 다자의 종합으로 이루어 지는데, 그런 종합에는 매우 이질적인 것들이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의 존재자는 이질적인 다자의 종합이라는 뜻이다. 이런 정신의 빛에서 볼 때, 생태학이라는 일자는 지구라는 또 다른 일자의 문제를 다룰 때, 그 가정의 가족 공동체 내에 있는 다양한 식구들은 물론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여러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하에서만 효율적인 학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태학은 단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 하나만을 다루는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분야를 두루 아우르는 학문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골고루 취급하는 이론적 체계를 갖추는 한도 내에서만 생태학은 인류가 부딪친 오늘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 어떤 이슈가 되든지 생태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은 언제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등의 여러 분야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만 하며, 따라서 하나의 생태학은 언제나 포괄적이고 종합적 관점을 견지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생태학은 과학기술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가 결합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인류에게 닥치는 온갖 재앙은 언제나 우상화되고 신격화된 글로벌 자본주의와, 그것과 연계되어 토해내는 과도한 소비주의, 지배와 착취의 국제 경제체제 등과 맞물려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나는 생태학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의 포괄성과 종합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사실 나는 내용을 거꾸로 말해왔다. 생태학은 이미 그런 학문이 되어왔으며,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현실에서, 생태학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학문들이 택해야 할 과제요 몫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정치경제학은 생태학을 따로 떼어 놓고서 스스로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없다. "모든 경제권은 생물권을 반영해야 한다."¹⁾ 최근 "도넛 경제학"이 유행하고 있거니와,²⁾ 그 저서의 핵심 주장이 바로 안쪽의 원환으로서의 경제학은 언제나 바깥의 원환으로서의 생태학의 관점과 연관 하에서 다루어져야 온전한 제대로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태학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포괄적이고 종합적 통합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점해 왔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지금까지 지적해온 생태학의 특징은 매우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들에겐 생태학의 포괄성과 종합성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미묘하고 난감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것이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천착해 보자.

즉, 만일 생태학이 그토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면, 이는 생태학으로 하여금 전체와 부분, 보편과 특수, 대립이 내포한 문제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종합학문으로서의 생태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분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을까? 모든 종류의 보편은 많은 경우 특수를 억압하거나 말살한다. 앞에서 우리는 생태학이 하나의 종합학문이 되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골고루 아우르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에 반대되는 질문도 취급해야 한다. 참으로 하나의 종합학문으로서의 생태학은 오늘과 같은 문화 다원주의 시대에 서로 갈등 속에 있는 여러 입장과 목소리들을 잘 반영할 수 있을까? 종합

1) 존 콕(John B. Cobb) Jr.,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 (지구와 사람, 2018), 57-58.

2)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도넛 경제학』 (학교재, 2018)

적 전체가 종종 부분들을 억압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 이외에도 여러 다른 문제들이 또 있다. 예를 들어, 생태학은 언제나 탈-인간주의를 선언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지구촌 내에서의 우월한 위상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역시 언제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탈-인간주의 시대에서 인간의 우월한 위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새로운 문명을 예견해 내고 그것의 지도를 제작해 낼 수 있는 하나의 실험으로서의 생태학은 이런 여러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에 의지해 이를 어떻게 시도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자.

2. 탈-인간중심과 범-경험주의 생태학

우선 다룰 문제는 이것이다. 생태학은 어떻게 지구 내 모든 사물의 목소리를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화이트헤드 철학은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위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질문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답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구라는 이름의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묻혀있었던 근본 이유는 인간중심주의 때문이다. 지구라는 가정에는 인간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다른 사물들은 발언권이 없었고 유독 인간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인류는 비인간적 존재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 고유의 특징으로서의 언어 능력이나 이성의 차별성을 지목해 가면서 스스로의 우월성을 변호해 왔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단지 근대에 이르기까지만 유효했다. 자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이외의 존재자들도 나름의 언어를 지니고 있으며, 고도로 발달된 이성 능력은 아니더라도 나름의 인지 능력을 지니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탈-근대주의적 입장은 이를 가치의 동등성(axiological equivalence), 혹은 한 단어로 그저 등가성(equivalen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한다. 하나의 존재자가 지닌 가치를 따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사고할 수 없으며,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존재자들 사이에 단지 다른 점에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능력'에서 상호 차이를 지닐 뿐이다.

나는 여기서 '존재'의 가치와 '존재를 표현하는 능력'에서 오는 가치의 차이를 구별하고 있다. 이는 물론 '존재'라는 말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 때문에 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지면상 더 이상의 난해한 논의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자. 하지만 현대 철학의 주류 입장이 견지하고 있는 바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위의 문장이 지닌 의미를 요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더 이상 언어능력이나 이성은 존재자들의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없으며, 진정한 잣대는 다른 것에서 찾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하이데거에게서처럼 '존재'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이런 잣대를 찾지 않고, 오히려 '경험'에서 잣대를 찾는다. 이를 표현하는 유명한 화이트헤드의 주장이 있으니, "의식은 경험은 전제로 하지만, 경험은 의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보면, 모든 존재자는 의식을 갖지 않더라도 최소한 나름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자는 등가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당장 제기되는 질문이 있으니, 동물의 차원은 몰라도 식물이나 그 이하의 존재자들이 경험한다는 주장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이트헤드의 입장은 확고하다. 전자나 양성자, 혹은 중성자와 같은 미립자들, 즉 가장 미시적 단위의 존재자들

도 경험을 향유한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파악, 느낌 등으로 표현해 왔다. 여기서 물론 우리는 파악이나 느낌을 의인화(anthropomorphization) 시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존재자들이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이나 느낌을 통해 경험을 향유하고 스스로 존속하는 사례에 대한 설명은 진화론이 그동안 잘 설명해 왔기에 여기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기로 한다.

탈-구조주의를 비롯한 현대 철학자들은 이런 비인간화된 파악이나 느낌을 정동(affect, 정감, 정서, 감정)³⁾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토론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매우 급진적인 방식으로 탈-인간주의를 말하면서 존재자들의 등가성에 대해 옹호해 왔다. 이들은 모두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 화이트헤드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의 표현 방식이 더욱 급진적이고 도발적으로 비치는 이유는 사물의 몸체(bodies)가 정동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이 몸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예, 정동들이 또한 생성(becomings), 혹은 '되기들'이라고 말한다. 사물의 몸체가 정동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이 역동적인 생성의 과정을 통해서 사물들의 몸체와 그것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본다. 하나의 몸체는 그것이 경험하는 정동이나 느낌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에게 작용하는 영향력을 따짐으로서 정의되는 것이지 그것이 지닌 본질이나 실체성의 여부를 따짐으로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화이트헤드가 이미 주장한 것을 재현한 것이기도 하다. 화이트헤드는 오래전에 미리 앞서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현실적 존재는 그것의 생성에 의해 구성된다. 이것이 과정의 원리이다.” (Its being is constituted by its becoming. This is the principle of process.” (PR 23) 화이트헤드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그 모두가 경험을 통해 생성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 이외의 사물들을 느끼면서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타자를 경험한다. 타자 경험은 다시 자기 생성의 밑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런 자기-생성은 타자와 전체 공동체에 공헌한다. 한마디로, 생성이 경험과 만나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자기-생성과 타자-생성이 만들어 내는 경험이 모든 존재자들에게 공통적이라는 이런 주장으로 인해 이후의 화이트헤드안들은 과정철학을 범-경험주의(pan-experientialism)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이를 범심론(panpsychism, 혹은 범-정신주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든 존재자들은 마음(心), 정신, 혹은 혼(魂)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서, 인간과 인간 이외의 모든 여타 사물들 사이에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기-생성과 타자-생성을 통해 창조성을 지니고 차이를 만들어 내는 데서 동등한 능력을 소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능력은 어느 경우 느낌, 마음, 혹은 이성으로 구별되어 표현될 뿐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서는 동등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의 철학적 토론을 멈추어도 되겠다.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주장들이 어떻게 생태학적 함의를 지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저절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외의 모든 존재자들이 어떻게 지구라는 가정 공동체의 동등한 가족 구성원인지가 나름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런 탈-인간중심주의적 생태학에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이미 언급된 바, 만일 모든 존재자들이 지구의 가족 공동체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말이 맞는다면, 이는 날카로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철학적 질

3) 오늘의 생성철학에서는 emotion이라는 정서가 주로 인간이 지닌 느낌을 표현하는 반면, affect라는 정서는 비인간들이 지닌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런 구별을 위해 여기서는 정동이라는 번역어를 따른다.

문을 일으킨다. 그중 대표적 질문은 이런 종류의 탈-인간주의적 생태계에서 인간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쉽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될 것이다. 만일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사이에 가치론적으로 차이 없이 동등하다면, 우리는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해 보자. 모든 존재자가 가치에서 동일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근거에서 인간의 우월성을 옹호해야만 하는가?

3. 객체들의 민주주의와 인간들의 생태학

화이트헤드가 모든 존재자들의 증가성을 주장하면서 탈-인간중심주의적 생태학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을 때, 일부 학자들은 화이트헤드의 사상을 또 다시 급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왔다. 스피노자와 베르그송에게서 자신만의 독특한 생성의 철학을 구축해 낸 질 들뢰즈와 그의 추종자들에게서 영향 받은 일부의 현대의 생성철학자들은 화이트헤드의 생성철학이 들뢰즈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면서, 아예 '객체들의 민주주의(democracy of objects)'를 주장하는 000철학 운동을 시작했다. 여기서 000란 Object-oriented-ontology(객체-지향-존재론)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새로운 좌파적 생성철학은 아예 모든 존재자들을 단지 객체로서만 보자고 주장한다. 이 운동의 주창자이면서 대표자인, 그레이엄 하만과 레비 브라이언트는 모두 화이트헤드를 이런 객체지향존재론의 선구자로서 추앙한다.⁴⁾

'객체들의 민주주의'에 따르면, 인류가 생태의 모든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아예 모든 존재자에게서 주체성을 박탈하고 단지 그들을 객체로서만 취급하자고 주장하는 데, 들뢰즈와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 모든 존재자들이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객체로서 존재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객체들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통치되고 운영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존재자들의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는 가치론적 증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는 얼핏 생태학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모델처럼 보이기는 한다. 지구라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지닌 각각의 가치를 골고루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000는 생태계의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과감한 방식으로 긍정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것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적용 가능성이다. 과연 객체-지향-존재론은 생태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 공평하게 대접할 수 있을까? 정말로 객체-지향-존재론은 참으로 모든 존재자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객체들의 민주주의는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론적 증가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얼핏 성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존재자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그들의 공동체와 사회를 동등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여기서 화이트헤디안으로서 논자의 입장은, 객체를 다시 주체의 차원에서 보아야 진정한 의미의 존재자들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자들은 객체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주체로 보아야 그들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존재자들의 고유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서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고유한 주체로 보아야 한다. 모든 존재자의 정체성을 단지 객체로서만 일반화하면, 특유의 고유성이 사라지게 되는 데, 그 이유는 하나의 고유성은 서로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고유성은 그것만이 갖는 창조성과 차이

4) 그레이엄 하만 (Graham Harman), 『네트워크의 군주』 (갈무리, 2019). 레비 R. 브라이언트 (Levi Bryant), 객체들의 민주주의 (갈무리, 2021).

를 보는 것에서 기인하며, 이런 창조성과 차이는 객체성이 아니라 그것만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데서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주체성은 각 존재자들을 범주적으로 구별하는 데서 온다.

난해함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논자의 이른 주장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인간을 인류로 일반화시킬 때 각 개인들의 독특성, 즉 여성, 아시아계 여성, 동남 아시아계 이주 여성, 동아시아 이주 장애인 여성 등의 구별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온전히 반영될 수 없게 된다. 구별은 차이를 만들고 차이는 차별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차이의 구별에 기초한 목소리가 등가적 대우를 낳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이상적 형태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 존재자들을 인간(man)들이 아니라 인간(men)들이어야 하며, 모든 여성은 여성(woman)인 동시에 여성들(women)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은 객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을 단일한 인간이 아니라 복수적 '인간들'로 분류해야 하는 것처럼, 동일한 원칙을 따라서 객체는 객체들로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객체를 주체들로 분류되는 것을 동반한다. 객체를 단지 객체들로 분류하는 것과, 객체를 주체로서의 객체들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생태계 공동체 사회에서 매우 다른 문화적 결과 낳는다. 이런 한도 내에서만 온전한 의미에서의 존재자들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존재자들의 민주주의는 객체의 민주주의이지만 동시에 주체의 민주주의일 때 온전하게 된다.

모든 존재자를 객체이면서 주체로 보는 생태학적 입장에 관한한 우리는 다시 화이트헤드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사물의 사사로움과 관련해 고찰되면, 그것이 바로 주체이다. 말하자면 자기 향유가 발생하는 한 순간이다. (An actual entity considered in reference to the privacy of things is a 'subject'; namely, it is a moment of the genesis of self-enjoyment” (289)

여기서 '사사로움'으로 번역된 privacy는 자기-향유가 탄생하는 순간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공공성(publicity), 혹은 일반성에서 구별되는 바, 임의의 존재자 자신만의 특수성, 혹은 특이성(singularity)이다.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모든 존재자는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객체이면서 동시에 주체이고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이다. 따라서 화이트헤드는 이를 아예 주체-객체로서 표현한다. 이렇게 본다면 하먼과 브라이언트가 주장하는 대로 화이트헤드는 어떤 면에서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주장한 효시일지 모른다. 어떤 경우 하나의 이상적 생태학은 주/객 도식을 넘어서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화이트헤드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화이트헤드는 존재자들의 민주주의가 주체-객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실현될 때 온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점에서 그에게 이상적 생태학은 주체-객체로서의 존재자의 민주주의를 택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의 건전한 의미의 생태학이 어떻게 탈-인간주의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지구 가족 공동체 내에서 인간, 아니 정확히 말해 다양한 인간들의 목소리에 대해 여전히 강조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정작 본래 제기되었던 질문, 탈-인간중심주의와 주체-객체적 생태학의 모델을 취급하면서 아직 토론하지 않은 것이 있다. 실천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론이라도 그것이 실천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이상적인 형태의 생태학은 인간에게 온갖 종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화이트헤드 철학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그의 우주론을 들여와야 한다. 그러므로 이젠 사변적 형이상학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우주론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다.

4.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과 생태학

어떤 형태의 생태학이 인류로 하여금 지구촌의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의 좋은 이론이 종종 인간을 자극해 자신의 좁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도록 자극하는 경우를 발견한다. 이는 생태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온전한 형태의 이론적 체계를 갖춘 이상적 모델의 생태학은 지구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참으로 배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다른 비인간적 존재자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없는 독특함으로 차별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과 같은 탈-인간중심주의의 시대, 즉, 모든 존재자들의 등가성이 승인되는 세계에서도 인간의 독특성은 그의 차별된 실천력에 의지해서만 입증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의 이런 실천적 우월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이상적인 모델의 생태학의 확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상적인 모델의 생태학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기 이해를 넘어 각각의 다른 존재자들, 즉 미시적인 생명체부터 각종 이질적이고 다양한 인간들이 직면한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적 실천에 나설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인간의 독특성은 그의 실천력이 보증하고, 이런 실천력은 좋은 이론이 촉진시킨다. 이는 다시 이상적인 형태의 생태학을 요구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생태학의 확보할 수 있는 최종조건으로서의 그것의 실천력과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참으로 토론할 준비가 되었다. 물론 이는 그리 만만치 않은 과제다. 특히 오늘의 생태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문이 감정이나 정동, 혹은 정감의 우선성에 대해서 강조해왔기에 더욱 그러하다. 즉, 비록 한 인간이 스스로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지배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대개 우리는 이를 인간의 게으름과 태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말하곤 한다. 나아가 대개의 평균적인 인간이 보여주는 게으름과 태만은 대부분 그들이 습관화된 정념(pathos)에 지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습관화된 정념은 느낌, 감정, 정동, 정감으로 다양하게 지칭되는 것들과 연관된 인간 본성의 한 부분으로서, 이 모두는 이제까지 우리가 오늘의 포스트모던적 생태학의 존재자들이 지닌 우선적 특징으로서 강조되어 온 것들이다. 즉, 이 모두는 존재자들의 생성과 창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들로서 간주된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온전한 생태학으로서의 생성과 과정의 철학이 직면하게 될 또 하나의 문제가 분명해졌다. 어떻게 생성과 과정의 철학에 근거한 이상적 형태의 생태학은 이 모순적 문제, 즉 정동과 정감이 모든 존재자의 경험과 생성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기제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의 극복만이 인간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역설적 상황을 어떻게 적절히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화이트헤드는 이에 대해 하나의 해답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의 책 『관념의 모험』(Adventure of Ideas)에서 그는 말한다. “의식에 미리 전제되어 있는 이 원초적 진행을 나는 본능이라 부르려 한다. 한편 본능과 지성의 발효작용이 끝난 뒤에, 본능과 지성의 합성양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단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요인을 나는 지혜라고 부르려 한다.... 지혜는 지적 체계와, 그 체계로부터 생략된 것들의 중요성을 항상 대결시키면서, 보다 깊은 이해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관념의 모험, 108-109)

다소 길게 인용한 위의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본능을 누르는 지혜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화이트헤드에게 지혜는 전제된 본능을 따라가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결단

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능력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토론과 관련해 이는 화이트헤드의 생성철학이 인간의 본능과 지혜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즉, 화이트헤드는 인간의 본능적 기제로서의 정동과 느낌의 우선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인간이 그런 본능적 기제들을 누르고 지혜에 의지해 자신을 넘어서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보통의 인간들은 비록 합리적 신념에 입각한 깨달음을 견지하면서도, 대개 느낌과 감정, 정동 등의 정념이나 본능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전락시킨다. 그러나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바, 결단으로서의 지혜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이런 도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형이상학적 주장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즉, 인간이 지혜에 근거한 자신의 결단을 통해 본능과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깨달음과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각각에게 하나의 공통적 목표가 제시되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갈등을 넘어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일종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택할 때에만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화이트헤드는 주장한다.

물론 포스트모던적 사고에서 종종 목적론은 학문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기계론에 입각한 자연과학적 세계상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세속 세계는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목적론을 혐오하기 십상이다. 형이상학과 신학의 경우, 목적이라는 이름하에 전체의 힘으로 부분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기 때문이다. 종종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 역시 이런 종류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거니와, 하지만 여기서 논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토론할 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단지 여기서 논자는, 현재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생태학의 적용가능성과 그것에 근거한 인간의 실천력 증진의 문제와 관련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목적론이나 형이상학을 어떻게 생산적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천착하려 한다.

화이트헤드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우주의 목적론은 미를 산출을 겨냥하고 있다.”(관념의 모험, 406) 화이트헤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구성원들이 갈등을 조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그 목표는 최고의 미를 인지하고 있는 존재자에게서 올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미를 최고의 선으로 바꿀 수도 있다. 우주의 목적의 구실을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우는 최고로 선한 것이라 불러 왔기 때문이다.

일견 복잡해 보이는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적 형이상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의 좁은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간 존재자들은 하나의 전체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와 관계를 맺는 일에는 각각에게 결단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정념에 이끌리기에 지혜를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때 우주 전체의 정신을 대변하는 존재자, 예를 들어 신과 같은 존재자로부터 제공되는 선과 미를 주목하며 그 목표를 겨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정념에 이끌리기 보다는 우주적 차원의 지혜를 선택하게 되면서 결단에 이르기 쉽게 된다.

<나오는 말>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형이상학의 말하는 전체와 부분의 변증법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 하나를 추가로 다루면서 우리의 토론을 종결하자. 이제까지 본 바대로, 화이

트헤드의 형이상학이나 그의 사상을 따르는 생태학은 인간의 실천력의 증진과 관련해, 공히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이라는 도식을 사용한다. 부분은 전체에 의지해서 자신의 결단을 성취하고, 전체는 그것에 의해서 발전한다. 다시 말해, 전체로 간주되는 존재자에게 부분적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그것에 의해 부분들이 스스로의 결단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이런 한도 내에서 실천적 효과는 배가된다.

이렇게 간명해 보이는 멋진 도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런 종류의 형이상학은 한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온전할 수 있는데, 즉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언제나 부분적 개체의 자유 및 그들이 생산해 내는 창조성과 차이를 삼켜버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화이트헤드적 사상도 언제나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데,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과정의 철학에서, 하나의 존재자로서의 전체는 언제나 고정된 상태에 있는 완전한 절대성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열린 상태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과정 속에 있으면서 열린 존재자로서 기능하는 전체만이, 자신의 좁은 자기 이해를 넘어서 다른 목소리들과 조화되면서, 그런 전체의 목적에 동의하려는 부분들의 입장을 억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체란, 하나의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우주가 될 수도 있다. 혹은 그것은 미가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을 통해 하나의 이상적 형태의 생태학적 문명론을 정립하려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과정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라 할 것이다.